

재수생집단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崔 先 華

(상지대학 사회사업학과 전임강사)

〈 차 례 〉

- | | |
|-------------------------|----------------|
| I. 문제제기 | V. 재수생의 욕구 분석 |
| II. 사회사업의 접근 가능성 | VI. 사회사업가의 서비스 |
| III.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VII. 결 론 |
| IV. 재수생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 |

I. 문제제기

이제까지의 재수생¹⁾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재수생의 숫적인 증가와 그것이 주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이 일년을 공식적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재수생 자신들이 느껴야하는 심리적 부담 등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으로는 정책적 차원에서는 대학수용인구의 증가, 고등학교 교육의 개선, 고용정책의 수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인이 지니는 가치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수현상을 막기 위한 가치관의 변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이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결과들이다. 즉, 교육적, 사회적 입장에서 재수라는 현상을 놓고서 그 발생원인과 처방 및 해결책에 대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재수생집단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고서 그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기왕에 주어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재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재수생들을 그 위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다른 재수생들에 대한 논의는 언론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재수생에 대한 글이 신문이나 기타 잡지에 실린 것이 가장 많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재수생들에 대한 시각은 재수생은 바로 사회문제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주로 신문기사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사들의 측면에서 본 재수생들은 주로 이들에 의해서 치료된 대상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재수생은 많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진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적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즉, 입시문제에 부딪혀 있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연구에서 얼마나 다른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래서 같은 입시문제에 처해있는 집단 모두에서 보여질 수 있는 현상들이 마치 재수생군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문제들이 재수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앞둔 집단의 문제 즉,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 외에도 여러 대학에서 재수경험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대학에서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재수라는 현상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대학생활에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집단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수경험을 가진 자들의 적응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약간씩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집단별로의 특성보다는 개인차에 의한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재수생집단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실제로 상담해 본 대부분의 재수생들과는 거리가 멀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서술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며, 어떻게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수생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수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접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재수라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이것이 주는 사회적, 개인적 영향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제까지의 재수생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러한 재수현상에 대한 접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특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재수생에 대한 접근이다. 재수생에 대한 접근은 재수라는 현상에 대한 접근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차이점은 재수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회적 현상으로서 재수라는 현상이 이미 존재하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재수생이라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며 입시라는 압박과 여러가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 의해서 발생된 비행이나 이탈은 종종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접근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사회사업가의 재수생 집단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사업의 대상집단은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어느 집단이나 문제를 지니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은 모두 사회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사회사업적 방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사업 대상집단으로서의 재수생집단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재수생집단 자체가 문제집단으로 등한시되어 왔고 사회적 책임영역으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이 거의 없으며 사설학원이나 가정에서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이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는 한은 한 집단으로 묶여지기보다는 개개인으로서 각자의 가정이나 개인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으로서의 부각이 어려웠다. 또한 이들은 일단의 실패자내지는 낙오자로서 스스로나 가정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 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몇몇이 내세울 수 있는 입장들이 못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시적인 충도적 집단으로서 다음 해에 대학으로 통합되거나 또는 사회인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사설학원들이 성행하고 있고 또한 이곳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들에 한해서라도 사회사업적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뒤따라야 할 조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재수생집단을 사회사업 대상집단으로서의 관심을 부각시키며 그들을 돕기 위한 접근가능성과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재수생집단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사회사업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가 무

엇이라는 것을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 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알아보며, 재수생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이들의 당면 과제인 학업성취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재수생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사업가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II. 사회사업의 접근가능성

사회사업가들의 재수생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각적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인에 대한 접근으로써 재수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갖는 여러가지 성격적 또는 적용적 장애요소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학습에 더욱 열중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인격발달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사회사업가의 관심은 학업성취 효과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학습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한 인격체로서 성장발달기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그들의 성장을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회사업가는 다른 전문가들보다 좀 더 넓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모나 가족에 대한 접근으로는 부모상담과 가족상담을 들 수 있다. 재수기에는 사회적 소속과 이 소속에서 오는 통제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보호와 이해가 절실하다. 많은 경우에 가족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도 상당히 크다.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기대의 좌절, 지나친 기대, 비행에의 불안과 두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것 외에도 부모나 가족의 재수생에 대한 상이한 태도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 그것이 재수생에게 미치는 부담 등이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재수생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억압으로 인하여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며, 정반대로 그들의 무관심과 냉대, 이해부족으로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족과 부모상담은 재수생을 돕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부모와 가족들이 재수생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건전한 오락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며 그들이 받아

들어지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재수기의 방황이 많은 경우에 소속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통제 의 부족에서 일어난다. 또한 이들이 보호받고 이해받는 집단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친구와 사회로부터의 소외, 고독 그리고 이성교제의 문제도 건전하게 지도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봄으로써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집단경험은 학습효과와 자아정체 발전에도 중요하다. 특히 재수기와 같은 시기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조적,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수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제도와 교육제도 자체의 수정을 위한 사회행동과 사회정책적 차원에도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불확실한 신분과 지위에서 오는 사회적 이탈을 막기 위한 사회행동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사업적 방법론의 재수생집단에 대한 적용은 여러가지 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즉, 사회사업적 접근이 그들의 최종목표인 학업성취효과와 재수생문제 해결 및 재수생활에의 적응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과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수생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은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무엇이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선은 사회사업방법론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수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서 그렇다면 이것이 학업성취효과와 그들의 문제해결 및 적응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III.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조사연구에서도 상반된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지능, 성격, 적응, 흥미, 가정환경요인 그리고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도와 상관있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지능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능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다. 김정기의 국민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능의 계 변인에 의한 학업성취의 예언변량은 40~51% 수준으로

다른 변인에 의한 학업성취의 예언변량보다 월등하게 높았다(김정기, 1981:78). 김옥환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지능간의 상관계수가 .51로 나타났다(김옥환, 1962:58). 김문수의 3인의 중학생연구에서는 .71을 보였고(김문수의, 1971:7), 강정자의 3인의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의 범위가 .45 ~ .46으로 나타났다(강정자의, 1960:166). Macphail의 대학성적과 지능간의 상관도는 .13 ~ .71로 넓게 분포되어있음을 발견했다(김영란, 1983:37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와 지능간에는 보통 중위 정도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상이한 나이군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위의 인용에서 국민학생과 중학생군에서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군에서는 그 상관도가 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나이군에 따른 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재학생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러한 군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들과의 면접상의 경험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집단에서도 지능과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는 우수반과 보통반과의 지능비교에서 드러난다. 우수반이 보통반보다 더 높은 지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반에도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상당히 있으며 우수반에도 지능이 높지 않은 학생이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지능이 유전적이나 환경적이나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지능을 이 나이군에서 일단 정해진 변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성격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변수로써 측정되어 있다. 김정기의 연구에서는 인성변인의 제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예언변량은 11~12%의 수준이며 상관성이 높은 변인들은 사려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등의 순이다. 사회성, 활동성 등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거나 아주 미미하였다(김정기, 1981:77). 심경석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성격 특성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안정성과는 .29, 사려성과는 .34, 사회성과는 .37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경석, 1970:21-22). 이은옥·이미라의 연구는 지배성과 .08, 책임성과 .34, 정서적 안정성과 .03, 사교성과 .13, 그리고 자신감-열등감과는 .26의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이은옥, 이미라, 1972:59). 그래서 성격특성 중에서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 책임성, 자신감-열등감, 사교성 등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있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재학생집단에 적용할 경우에 여러가지 변수를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상담자료로써 사용한 성격검사 조사에는 책임감,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사교성이 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변수는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재수생군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된 것이다.²⁾ 또한 면접에서 보여진 결과는 책임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학업성취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높을수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끈기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성과는 대체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으며 그러한 것에 관심이 쏠려있고 그래서 학습에 집중할 수 없거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적응에 대한 연구는 최명애의 간호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적과 적응이 학교, 경제, 건강 및 가치도덕에 5%의 유의수준으로 상관성이 있었다(최명애, 1978: 61). Matlin과 Mendelsohn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적응간에 $P < .01$ 수준에서 .32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적응간에는 $P < .02$ 수준에서 .30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김영란, 1983: 44에서 재인용). 적응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습에 대한 적응이 높을수록 잡념이 적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며 적응이 낮을수록 잡념이 많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적응과 학업성취도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적응 중에서 건강에 대한 적응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성문제를 가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학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았다.

흥미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흥미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흥미요인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흥미가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Bloom은 학업성취도의 성공적인 경험이 교과흥미를 높이는데 공헌했는지 교과흥미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공헌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지만 상호인과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김영란, 1983, 41 재인용). 면접에서는 다양한 흥미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각 과목에서 고르게 나타나며 흥미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각 과목의 성적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성을 따르기보다는 흥미를 따라서 계열선택과 학과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학습에 지능만이 아닌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가정환경요인에 대한 김정기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제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예

언변량은 17~20%의 수준이며 가정환경의 요인 중에서 물리적 조건이 학업성취와는 가장 높은 상관관을 나타내고 있었다(김정기, 1981:77-78). 이는 교육적인 가정의 물리적 조건이 좋을수록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성원의 상호간의 애정, 신뢰, 협동의 분위기와 생활공동체로서의 응집력이 강한 가정분위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는 아마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재수생군에서도 가정환경과 학습이 상관관이 있는 것은 뚜렷하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수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비문제도 포함된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한 성인으로서의 집안문제에의 대입 등도 지적되었다. 부모와의 성격차이와 부모의 기대, 부담 등도 지적되었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Bruck과 Bodwin의 연구는 자아개념의 회복성과 학습부진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제시했다. Reece는 일관성 없는 자아개념이 학습부진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최명애, 1978:61).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는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를 예언하는데 지능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윤희의, 1972:45에서 재인용). 여기서의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그가 처해있는 「장」에서 자기 자신 및 그의 주위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부모, 형제자매, 친구, 배우자 그리고 교사들이 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마침내는 그가 갖고 있는 성격이 이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이 확신이 그 개인에게 옮겨져 그가 이를 채택하고 긍정할 때 자신에 대해 갖는 신념의 일부가 결정된다. 또한 그가 생활하면서 얻는 체험과 행동을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행동양식을 일관성있게 나타내는가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되기도 한다. 자신의 자아개념은 그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 개인이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아개념이 재수생군에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그들의 대부분이 대학진학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신뢰감을 갖지 못하며 주위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도 많은 불안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있어서도 스스로 잘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나 불안, 두려움 등이 많으며 지나치게 자신을 억압하거나 자신에 대한 요구가 심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사회사업

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지능과 흥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능은 그 상태에서 일단 주어진 변수로 받아들이고 흥미 또한 한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사업가가 출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재수생집단은 나이군으로 볼 때 이미 어느 정도의 지능의 발달과 개인적 흥미가 이루어진 안정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들, 적응과 가정환경, 자아개념에 관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 성격면에서도 그들의 성격에 장애를 느끼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재수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사회사업가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의 재수생집단에 대한 개입이 학습효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사업가의 개입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성과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재수생들은 그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그래서 재수생 심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학업성취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행의 방지효과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재수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징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IV. 재수생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

재수생이라는 말과 함께 따르는 심리상태의 묘사로는 열등의식, 불안감, 초초감, 패배감 등이 보편적이다. 사회적 상황으로는 무소속, 불명확한 신분 그리고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대개가 깊은 생각이 없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모두에게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말들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재수생들의 전용어로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전용신의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불안표출 그리고 신경증 증후 등이 재수생 집단과 정상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표출은 유의수준은 아니었지만 재수생집단이 정상학생집단 보다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났다(전용신, 1968: 81-84). 또한 최병호의 연구에서는 지난 일년간의 재수생활 중의 심리상태를 질문지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 42.8% 정도는 안정되었다. 또는 별느낌이 없었다였으며 불안스러웠다가 11.2%, 갈등상태에 있었다가 46.0%로 나타나고 있다(최병호, 1977: 2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재수생들이 불안 등의 심리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재수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는 별 다른 느낌이 없다가 47.7%를 보이며, 부끄럽게 생각한다 19.1%, 부끄럽지만 내색을 하지 않는다 31.8%로 나타나고 있다(홍웅선, 이형행, 1976:159).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재수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과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 대한 주위의 반응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재수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한다 15.6%, 무관심과 무척 싫어하고 잘 도와주지 않는다 7.6%, 아무말 없이 지원한다 74.2%로 나타나서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웅선, 이형행, 1976:161). 주위에서 재수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멸시한다 25.3%, 냉정하게 느껴진다 37.8%, 무관심한것 같다 24.2%, 동정적이며 이해하는것 같다가 10.5%로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냉대와 멸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웅선, 이형행, 1976:162). 이러한 것은 재수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압박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재수생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심리적 특성이 그들 자신의 문제로써 나타나는 경우와 주변과 사회에서 이들에게 부담지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로서의 이해부족, 냉대, 멸시 등은 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변과 사회의 그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의 죄책감과 약한 자기인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수생들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변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재수생들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불안과 낮은 신뢰감, 지나친 죄책감, 주위의 반응에 대한 예민성 등이 그들 속에서 극복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며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여기에 대한 욕구조사나 실제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 다만 부모나 교육자, 사회의 입장에서 보는 재수생의 문제점과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는 이러한 재수생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측면을 넘어서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재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과 진전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재수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재수생들이 표현하는 문제점과 욕구로써 살펴보기로 한다.

이 조사는 J학원에서 실시한 심리적응 검사에서 개인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하도록 해서 표집된 것이다. 표집방법은 무작위표집으로 우수반에서 문과 50명, 이과 50명, 그리고 보통반에서 문과 50명, 이과 50명을 선출했다. 또한 여학생반에서 50명을 첨가해서 합계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에서 100명은 직접 연구자 상담을 1회 내지 2회 실시한 학생들이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3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같은 비중을 가지는 문제는 4가지를 지적했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가지 만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통계처리는 단순히 빈도만을 측정하였다. 이 적응검사는 표준적응검사 고등학교용을 사용했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 연구실에서 엮은 것이다.

V. 재수생의 욕구 분석

문	항	명 수	%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85	34.0
수학을 더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43	17.2
나에게 꼭 알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42	16.8
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30	12.0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21	8.4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모자란다		17	6.8
대학과 학과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16	6.4
나의 정말 흥미는 무엇인가?		15	6.0
영어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4	5.6
남의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싶다		14	5.6
의지가 박약하다		14	5.6
시험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13	5.2
정치에 의해서 알고 싶다		13	5.2

문항	명수	%
대학에 진학해야 할 것인가?	13	5.2
공부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없다	11	4.4
부모님이 너무 큰 기대를 한다	11	4.4
직업에 관련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	11	4.4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11	4.4
기 타		
	394	157.6

그들이 지적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서 제 1의 빈도를 보이는 것은 34%가 지적한 것으로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이다. 이것은 그들의 최종목표가 학업성취를 통한 대학입학에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홍응선의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그들이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린 것과는 연관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노력부족을 인식하는만큼 이번에는 더 잘 해 보겠다는 욕구가 큰 것이다. 그다음은 17.2%가 지적한 수학을 더 잘하게 되었으며 좋겠다이다. 이것은 영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단지 5.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수준이 너무 높거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며 이러한 것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수학공부와 비슷하게 16.8%에 의해서 지적된 것은 내게 꼭 알맞는 직업이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것은 대학에서 학과를 정할 때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계열을 분류할 때 누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선택에 따라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수를 하는 경우에 다른 학과를 지망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으며 그들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알맞는지를 알고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문점은 그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수시기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한번은 해 본 후이기 때문이며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이다(12%). 이것 또한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관련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 적용에 대한 문제로서 8.4%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직접면담에서 지적된 집중력이 부족하다와 잡념이 많다와도 연결될 수 있다. 사춘기 후반기에 있는 집단으로서 이러한 많은 호기심과 의욕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은 6.8%에 의해서 지적된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모자란다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에 비해서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현상과 관련되며 그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며 끈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의 부족에서도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4%가 지적한 대학과 학과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그들의 당면과제로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대학에 한번 이상 지망해 본 학생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상담의 미비와 불충분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6.0%가 지적한 나의 정말 흥미는 무엇인가이다. 이것 또한 사춘기의 성장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발견과 성숙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의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를 도무지 알 수 없다와 남의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박약하다가 5.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5.2%가 지적한 것으로는 시험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대학에 진학해야 할 것인가 등이다. 4.4%가 지적한 것으로는 공부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없다와 부모님이 내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직업과 관련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등이다.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의 적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관련되는 공부하는 기술이나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은 장래에 관한 문제로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신의 흥미,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 또는 그곳에서의 성공여부에 대한 질문들이다.

그 다음은 개인적 적응으로서 자신의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나 버릇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다. 그다음은 건강문제로서 자신의 신체적 질병을 호소하는 것과 체격에 대한 불만이며 가정에서의 적응은 부모의 기대와 가족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가족적 분위기와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적응으로는 대인관계는 원만히 하는 것과 친구를 원하는 것이며 개인적 문제는 인류에 대한 봉사과 정치적 관심 등이다. 가장 적은 문제를 나타낸 것은 이성에 관한 것이며 이성친구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 상담에서 많은 수의 학생

들이 이성친구가 있다, 또는 있었으나 헤어졌다고 호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관심과 욕구가 공부와 대학진학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춘기에 겪는 인적발달 과정과 자기발견에의 관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재수생 집단의 특성만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학입시를 앞둔 집단의 특성과 성장발달 과정에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욕구로 나타난다. 이 집단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성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비슷한 나이군에 속한 다른 집단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욕구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나타낸 욕구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상담할 내용으로서 지닌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는 진로·진학문제로서 30.1%를 차지한다. 학습문제가 20.2%를 차지하며 그다음은 친구문제 12.1%, 이성문제 9.5%, 성격이나 나쁜 습관문제 5.4%, 건강문제 4.7%, 가정문제 4.5% 순으로 나타난다(이해정, 1984:61). 이러한 결과는 재수생군에서 보여지는 현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진로와 진학 학습문제이라 하더라도 재수생군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재수생 집단의 낙오자로서의 특징이라 심리현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과의 직접 상담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들이 실패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조금 더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특별히 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수생 집단을 너무 과장해서 문제집단으로 취급해 온 선입관의 문제이다. 비행과 이탈의 대상으로 처벌받아 온 경우에도 법의 적용이 그들에게 편파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한 조사를 살펴 보면 연령적으로는 동년배인 재수생들이 대학생군에 비해 음주나 흡연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재수생군이 상상외로 음주나 흡연율이 낮다는 사실은 가끔 매스컴에서 학원을 마치 비행의 온상지처럼 해석하는 경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런 차원에서 재수생들은 아직 고등학생으로서의 Identity가 연장된 상태에 있어 성인화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이시형외, 1974:7-8).

두번째로는 그들의 실패를 지나치게 문제시 해 온 가족과 주변의 태도문제이다. 실패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나 가족, 주변환경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확대시켜 온 느낌이 든다. 이러한 것은 직접 상담에서도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부당한 대우로서 호소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고등학교에서의 지도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들은 대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에 대한 파악 등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한 공부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지도가 있었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이 지도되지 않았다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조차도 그들 자신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학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또는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알아보았을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으로 해서 재수생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기초공부, 실력측정 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장래와 관련하여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자신을 알아 보기 위한 여러가지 테스트 등이 필요하다. 개인적 적응으로는 공상, 죄의식, 의지박약, 신경과민 등을 덜어주기 위한 개인적 치료서비스와 상담, 가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상담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선입관, 그릇된 인식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사항만을 재수생들의 욕구로서 파악하기에는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위에서 사용한 방법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적응점사에 나타난 228개 문항에 맞지 않거나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 그들의 욕구로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그것의 심각성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통계처리에서 나타난 높은 비율은 심각성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지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문제가 개인에게 어느정도의 심각함의 순서로써 나타났는지가 지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4%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만으로 국한시켰다. 그래서 그 합이 394문항으로 나타났다. 250명이 모두 세문항을 지적했다면 750문항이 지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47%를 차지하는 356문항은 228개의 다른 문항으로 넓게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처리상 잘

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욕구가 대단히 개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식의 조사에서는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나 욕구는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 조사에서도 이러한 숨겨진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성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내고 있다. 즉, 상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살펴볼 때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수생의 문제와 욕구의 윤곽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욕구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직접적인 조사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앞에서 나타난 조사에 의거해서 사회사업가들이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Ⅵ. 사회사업가의 서비스

재수생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상담서비스는 우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적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그들의 가장 큰 욕구인 학습효과 증대와 이것을 위한 기술내지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들이나 각 과목 담당선생님과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은 그들의 장래에 대한 사항들이다. 우선, 대학에 관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어떤 학과들이 있으며 그곳에서의 학습내용, 장래성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장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능검사, 흥미검사, 적성검사 등의 테스트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지도와 진학지도 외에도 그들의 개인적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느끼는 문제상황이나 부적응을 중심으로 한 개별상담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사업가의 재수생 상담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 감안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수생에 대한 상담

이들에 대한 상담으로는 스스로 자신이 재수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지난 시간을 반성해 봄으

로써 또다른 각오로써 재수시기에 임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인격성장과 발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자기 존경심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준다. 또한 실패의 원인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다. 가족과 사회적 이해 부족과 냉대를 전될 수 있도록 자아를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2. 부모 및 가족 상담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그것의 좌절에서 오는 배신감과 분노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억압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 재수생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해 주도록 돕는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상의할 수 있다.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을 전개할 수 있다.

3. 사회와 제도적 차원에서의 행동전개

재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재수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 사회행동적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가지는 재수생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불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재수생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집단을 형성해 줌으로써 그들이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재수생을 지도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Ⅶ. 결 론

현재의 재수생이라는 입장은 우선은 사회적인 소속이 없으며 교육의 진공상태에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줄 책임을 받아들이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차적인 개인적 책임, 가정에서의 부모의 책임, 그리고 일부 사설학원에서의 지도 뿐이며 대부분은 개인적 책임으로 방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집단을 지도할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곳에서의 지도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재수생들은 사설학원에서 재수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사설학원에서나마 재수생집단에 대한 보호와 지도의 책임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기관을 포함한 사회단체에서의 책임수용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사업을 담당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서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재수생 프로그램을 확장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은 재수생집단과 사회사업가와의 연결이다. 그래서 사회사업가의 서비스가 그들에게 학업성취효과와 재수생활에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려려고 했다. 나아가서는 재수생의 인격발달과 청소년 비행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제까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지니고 있는 재수생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이해부족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더욱 더 어려운 처지로 몰아 넣기 보다는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회적 태도변화와 수용적 태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기에는 이 논문이 여러가지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재수생들에 대해서 발표된 산발적인 글이나 연구를 문헌적으로 모아 보고 시론적인 조사를 실시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수생과 사회사업가와의 연결이 구체적 사업으로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또다른 구체적 사업계획과 이러한 목적에 알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註 ***

- 1) 여기에서 재수생이라는 단어의 정의로는 대학입학 시험을 대비해서 재수하는 대학진학 준비생으로 대학입학 예비고사 응시자 중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진학 희망자를 뜻한다.
- 2) 이러한 변수는 재수생 상담을 10년 이상 담당해 오신 교육학 박사의 연구 결과이다. 이 분은 여러가지 변수를 골라서 적용시켜 본 결과, 위의 변수들이 가장 상관성이 높다고 주장하신다.

김정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옥환, “학업성취 예측에 관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2.
- 김문수의, “창의성과 지능 및 학업성적의 관계분석”, 「교육연구」 제 3집, (인천 : 인천교육대학 교육연구회), 1971.
- 강정자의, “지능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교육연구」 제 16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60.
- 김영란, “재수생의 학업성취도와 제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실경석, “성격특성과 학력간의 상관성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 이은옥, 이미자, “간호학상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3권 제 1호, 1972. 12.
- 최명애, “군간호생도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국군간호」 제 7호, 1978.
- 강윤희의, “학업성취와 심리적 및 가정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제 11권 6호, 1972.
- 전동신, “재수진학생의 심리의 일면”, 「심리교육논총」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1968.
- 최명호, “재수생 생활지도에 관한 일연구”, 전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홍응선, 이형행, “재수생의 누적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1976.
- 이시형의, “재수생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 13권 제 1호 1974.
- Costin, Lela B.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 McGraw-Hill N. Y. 1972.
- Friedlander, Walter A.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4th ed.
- Robertsed, Robert W. *Theories of Social Case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2.